

여공들의 ‘불온한 방’

-1970~80년대 여성 노동자들의 ‘장소 만들기’로서의 노동운동

임 희 현**

차 례

1. 서론
2. 간이 숙박소의 삶과 ‘자기만의 방’의 부재
3. 산업선교회 소모임과 ‘온전한 방’의 경험
4. ‘불온한 방’의 탄생: 새로운 ‘장소 만들기’의 의미
5. 결론

1. 서론

본고는 1970~8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 및 노동 수기에서 표상화된 여성 노동자들의 ‘소모임’ 만들기를 새로운 ‘장소 만들기’의 문제로 이해하고, 여기에서 탄생하는 새로운 ‘장소’의 의미를 구명하고자 한다. 이때 여성 노동자들의 ‘장소’란 여성 노동자의 삶의 공간인 방, 집, 기숙사 등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결집한 크고 작은 모임들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다.

본고의 시도는 1970-80년대의 ‘노동문학’ 연구들이 배제했던 목소리들

* 이 논문은 구보학회 제30회 정기 학술대회 <공간, 운동, 출판: ‘1980년대적인 것’의 재맥락화>(2020.7.1.)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수료

을 소환하고, 이것의 의미를 점검하여 1980년대 문학사를 재편하고자 하는 최근 연구 경향의 흐름과 맞닿아있다. 1980년대 문학사를 다시 해석하려는 연구 경향 아래 그동안 연구대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노동 수기를 노동자의 정치적 주체화와 연결시켜 해석하는 일련의 연구흐름이 생겨났고,¹⁾ 그중에서도 ‘여성 노동자’들은 기존의 ‘노동운동’과 ‘노동문학’을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주체로 호명되기 시작했다.²⁾ 그러나 텍스트 속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보여주는 새로운 ‘정치성’을 분석하면서 이를 ‘여성 특유의 문화’로 설명하고, 여성 노동문학의 의미를 ‘여성적 글쓰기’에서 찾는 연구 방식에 대해서는 다소 비판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여성적 글쓰기’가 왜 이루어졌으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 없이 여성들의 글쓰기가 보이는 특징들을 바로 ‘여성적인 것’으로 의미화한다면 여성들의 텍스트가 지니는 다양한 함의들을 지나치기 쉽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이 글은 여성 노동자들의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소모임’의 양상을 ‘장소 만들기’의 차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동안 여성 노동자들의 ‘장소’ 중 여성들의 ‘소모임’의 의미를 독해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이루어져왔다.³⁾ 특히 김원은 기숙사와 소모임

- 1) 천정환, 「서발턴은 쓸 수 있는가-1970~80년대 민중의 자기재현과 ‘민중문학’의 재평가를 위한 일고」, 『민중문학사연구』 47, 민족문학사학회, 2011; 정종현, 「노동자의 책읽기-1970-80년대 노동(자)문화의 대항적 헤게모니 구축의 독서사」, 『대동문화연구』 86,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4; 한영인, 「글 쓰는 노동자들의 시대-1980년대 노동자 “생활글” 다시 읽기」, 『대동문화연구』 86,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4 등이 대표적이다.
- 2) 김양선, 「70년대 노동현실을 여성의 목소리로 기억/기록하기-여성문학(사)의 외연 확장과 70년대 여성 노동자 수기」, 『여성문학연구』 37, 여성문학학회, 2016; 김문정, 「1970년대 한국 여성노동자 수기와 그녀들의 ‘이름 찾기」, 『한국학연구』 49,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8; 오자은, 「‘문학여공’의 글쓰기와 자기 정체화」, 『한국근대문학연구』 19, 한국근대문학학회, 2018; 안지영, 「여공의 대표 (불)가능성과 민주주의의 임계점-1970~1980년대 여성-노동자들의 수기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55, 상허학회, 2019.2.
- 3) 방혜신, 「70년대 여성노동운동에서 여성 특수과제의 실현조건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논문, 1993; 정미숙, 「70년대 여성노동운동의 활성화에 관한 경험 세계적 연구-섬유

을 중심으로 한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자 문화가 ‘정치적인 것’의 확장을 이루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⁴⁾ 그는 그 과정에서, 소모임과 클럽 활동이 여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이어진 이유에 대해 고찰하면서 소모임이 “여성 노동자들을 모으기 가장 쉬운 조직 형태”⁵⁾였고, 이 소모임이 가동될 수 있었던 이유로 ‘여성 노동자 특유의 문화’인 ‘자매애’를 꼽으며 여기에서 ‘정치성’을 발견한다.⁶⁾

그러나 이를 여성 노동자들의 정치성을 ‘자매애’라는 키워드를 통해 설명할 경우, 여성 노동자들의 정치성이 여전히 ‘여성 고유’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되기 쉽다. 여성 노동자들이 보여준 정치성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본고는 여성 노동자들의 텍스트 속에 드러나는 차별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의 장면들을 ‘장소’라는 새로운 키워드를 통해 이해하고자 한다. 왜 여성 노동자는 ‘소모임’이라는 조직을 위주로 결속하고 ‘자매애’를 통해 행동하게 된 것일까? 그것은 여성 노동자들에게 있어 그들만의 ‘장소’를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광현은 장소를 “내가 찾아 기억을 남기는 곳”, “인간의 이미지, 가치, 기대, 행위 등으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한정된 자리”로 정의했다.⁷⁾ 한편 도린 매시는 장소를 “다중적 사회관계의 병치, 교차, 접합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았다.⁸⁾ 이러한 정의들을 정리해 본다면, ‘장소’란 ‘특정한 가치가 개입되면서 의미가 달라진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장소를 만

업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논문, 1993; 김원, 「1970년대 ‘여공’의 문화: 민주노조 사업장의 기숙사와 소모임 문화를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 4, 한국여성연구소, 2004.10.

4) 김원, 앞의 글, 102면.

5) 위의 글, 131면.

6) 위의 글, 102면.

7) 김광현, 『거주하는 장소』, 안그라픽스, 2018, 42-43면.

8) Doreen Massey, 정현주 역, 『공간, 장소, 젠더』,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247면.

들고 점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김현경에 따르면, 장소를 점거하는 행위는 “사회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리를 확인하는 보편적인 방식”⁹⁾이다. 장소는 인간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장소를 갖기 위한 투쟁은 존재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는 투쟁이기도 하다.¹⁰⁾ 결국 여성 노동자의 텍스트 속에서 드러나는 ‘장소’에의 결핍과 갈망은 곧 이들이 노동자로서 추구했던 자신들의 정체성과 존재방식에 대한 청사진과도 같은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본고에서는 여성 노동자들을 둘러싼 다양한 장소를 ‘방’이라는 개념에 비추어 살피고자 한다. 이때 한국의 70~80년대 여성 노동자들에게 있어 ‘방’이란 단순히 집이라는 공간을 벽으로 막아 만든 공간이 아니라, ‘집’에서 독립하고 ‘일터’로 나아가기 위해 이들에게 필요했던 다양한 ‘사회적 공간’을 가리킨다. 가사와 육아가 여성의 당연한 의무로 여겨졌던 시기, 여성은 곧 ‘집’이라는 장소와 동일시되는 상황에 놓인다.¹¹⁾ 그러나 신흥 산업국가에서 여성은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매력적인 자원이 되기 시작하는데,¹²⁾ 이러한 양상은 1960년대 중후반 이후의 한국의 상황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가 된 여성들은 집을 떠나 ‘독립적인 주체’로서의 삶을 시작했으나, 동시에 남성 노동자에 비해 훨씬 적은 임금을 받고 더욱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는 불합리한 삶을 새로이 반복하게 된 셈이기도 했다. ‘공장’으로 대표되는 이들의 일터 역시 노동자에 대한 억압적 상황과 함께 “남성적 가치와 남성권력이 당연하게 스며들어 있는”¹³⁾ 이중의 차별적 공간이었던 것이다. 이때 여성 노동자들에게

9)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2015, 289면.

10) 위의 책, 285면.

11) 여성과 ‘집’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Linda Margaret McDowell, 여성과 공간 연구회 역, 『젠더, 정체성, 장소』, 한울아카데미, 2019, 제3장 및 Gill Valentine, 박경환 역, 『공간에 비친 사회, 사회를 읽는 공간』, 한울아카데미, 2014, 제3장을 참조했다.

12) Linda Margaret McDowell, 위의 책, 234면.

필요한 장소란, 이들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존재할 수 있는 개인적인 공간과 사회의 억압과 남성권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일 것이다. 이 지점에서, 당대의 여성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장소’들이 권력과 억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여성 공동체’인 동시에 ‘사적 공간’의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는 것은 흥미롭다. 이들이 만들어낸 ‘불온한 방’은 개인의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동시에 추구될 수 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사적 공간이 정치성을 지닌 ‘장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여성 노동자들의 ‘장소’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들이 남긴 수기 및 소설을 통해 이들이 자신들의 ‘장소’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본고는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 수기인 송효순의 『서울로 가는 길』(형성사, 1982), 석정남의 『공장의 불빛』(일월서각, 1984), 장남수의 『빼앗긴 일터』(창작과비평사, 1984)와 신경숙의 소설 『외딴방』(문학동네, 1995)을 주된 분석 텍스트로 삼는다. 물론 수기와 소설이라는 장르상의 차이를 부정할 수는 없으나, 이 텍스트들은 ‘장소’에 대한 당대 여성 노동자들의 생각을 생생하게 담은 자료인 동시에 이들이 ‘장소 만들기’를 통해 ‘각성한 노동자’로서 탈바꿈하는 과정을 담은 기록이라는 점에서 함께 독해될 필요가 있다. 위의 텍스트들을 중심으로, 우선 2장에서는 농촌과 집을 떠난 여성들이 도시에서 노동자로 일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가지게 되는 방인 ‘기숙사’와 ‘벌집’의 성격을 살핀다. 3장에서는 산업선교회 소모임이 처음으로 여성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온전한 방’으로 기능했음을 밝히고, 그 의미를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산업선교회 소모임의 경험을 통해 여성 노동자들이 자신들만의 장소를 만드는 과정을 서술하고, 이것이 ‘사적 공간’인 동시에 연대와 저항이라는 정치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불온한 방’이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13) 위의 책, 239면.

2. 간이 숙박소의 삶과 ‘자기만의 방’의 부재

경공업을 내세워 경제부흥을 꿈꾸던 1960년대 중후반, 농촌을 떠난 여성들은 공장으로 몰려들게 된다. 공장은 다른 일보다 수입도 높고 기술을 배워 돈을 더 벌 수 있으며, 기숙사가 있다는 점에서 안전한 일자리로 여겨졌기 때문이다.¹⁴⁾ 이러한 여성 노동자들은 공장에 입사하면서 ‘기숙사’, 혹은 ‘별집’의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사적 공간조차 이들에게는 생산성의 향상을 위한 통제 공간으로 기능했다.

기숙사는 회사에서 여성 노동자들에게 제공한 일종의 ‘복지’¹⁵⁾이자 ‘사적 공간’이지만, 실상은 여성 노동자들이 저임금으로 풍부한 노동력을 제공하게 만드는 노동력 공급체계인 동시에,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노동자들의 생활을 규제하는 통제와 감시의 공간이었다.¹⁶⁾

기숙사의 엄격한 규율은 노동자들의 생활영역을 규제하는데, 일주일에 외출이 3번으로 제한되고 잠깐 밖에 나갔다 오는 것도 외출로 취급된다. 외출을 했을 때는 10시까지 기숙사 입실을 해야 하며, 만약 어겼을 경우에는 일주일동안 외출이 금지되는 벌칙을 받는다. 외박은 일주일에 1번 토요일, 일요일에 가능하고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벌칙으로 한달간 외박이 금지된다. (중략) 생산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위해서 11시면 강제 소등을 한다거나 복도에 나와서 돌아다니는 것을 철저히 감시한다. 또한 출근시간이 되면 집단적으로 줄을 서서 작업장으로

14) 정찬일, 『삼순이-식모, 버스안내양, 여공』, 책과함께, 2019, 509면.

15) 정찬일이 예시로 들고 있는 각서에 제시된 “본인은 기숙사를 입주함에 있어 회사가 복지 향상을 위해 기숙사를 제공한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며 나의 제2의 가정임을 명시하고 가족적이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생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후략)”는 회사가 어떤 명목을 내세워 여성 노동자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했는지 보여준다. (위의 책, 2019, 249면.)

16) 정미숙, 앞의 글, 104면.

가기 때문에 지각이나 무단결근을 막을 수가 있다.¹⁷⁾

이러한 기숙사의 통제적 분위기는 실제 여성 노동자의 수기 곳곳에서 감지된다. 아래의 인용은 노동시간에 맞추어 운영되는 당시 기숙사 상황을 보여주는 여성 노동자들의 수기에서 각각 발췌한 것이다.

동료들의 불만은 이런 것이었다. 9시까지 잔업하는 것은 돈벌고 좋은 일일수도 있지만 늦게까지 일하고 기숙사에 들어가면 11시에 전깃불이 나가니까 나의 시간이 너무 없어 불만이라고 한다.¹⁸⁾

9시다. 지긋지긋한 출근 벨소리…… 잠깐 잠이 들었었나보다. 너무 곤하여 몸을 일으키기가 힘들다. 가위눌린 듯 ‘일어나야 해’를 몇 번이고 생각하다가 겨우 몸을 일으켜 수돗가로 가서 세수를 한다. 9시 30분이 되어도 몸을 일으키지 못하고 뒤척이는 사람들에게 “빨리 일어나요, 출근시간 다 됐는데”라고 소리치자 용수철이 튕기듯 벌떡 일어든다. 회색 작업복으로 갈아 입고 방문을 잠그고 신발을 손에 든 채 복도를 걸어나간다. 남들이 일어나 학교에 가고 출근하고 할 시간에 우리는 잠을 자려고 멀쩡한 대낮에 이불 부여잡고 통사정을 해야 하고 남들이 집으로 돌아갈 시간, 이 밤중에 우리는 일하러 간다. 먼지가 뽀얗게 일고 기계소리 철컹대는 작업장으로 간다. 기숙사 계단을 줄지어 내려가는 회색의 이 행렬……¹⁹⁾

공장 기숙사와 군대 내무반의 풍경을 겹쳐서 연상하고 있는 신경숙의 소설 『외판방』 역시 이들이 느꼈던 기숙사의 통제적 분위기를 생생하게 보여준다.²⁰⁾

17) 위의 글, 104-105면.

18) 황현숙, 「내가 다니는 회사」, 나보순 외,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도서출판돌베개, 1983, 36면.

19) 장남수, 『빼앗긴 일터』, 창작과비평사, 1984, 41면.

20) 신경숙의 『외판방』은 허구성이 가미된 소설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작가가 여

강사들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산업역군이라는 말을 쓴다. 납땀질을 쉬 습시키면서도 산업역군으로서, 라고 말한다. 훈련원 기숙사 문에는 유치원에서처럼 꽃이름으로 된 방 이름이 각 방문에 붙어있다. 내가 기숙하던 그 방의 꽃이름은 무엇이었는지? 장미? 백합? 다만 나무 침대에 사물함이 하나씩 달려 있었다는 생각. 그로부터 몇 년 후, 텔레비전에서 ‘동작 그 만’이라는 코미디를 방영한 적이 있다. 열여섯의 내가 묵던 기숙사와 ‘동작 그만’ 속의 군대 내무반이 닮아 있어 나는 그 프로그램을 열심히 시청했다.²¹⁾

또한 『외판방』은 ‘집’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집으로서의 ‘방’에 대한 여성 노동자의 사유를 보여주는 텍스트이기도 하다. 소설의 ‘나’는 ‘기숙사’를 거쳐 ‘별집’에 머무르게 된다. 이때 등장하는 이른바 ‘구로공단 별집’은 급격히 증가한 여공들을 수용할 시설이 충분하지 못했던 공장 주변에 생겨난 여공들의 주거 형태를 가리킨다.²²⁾

그러나 이 공간 역시 나만의 내밀한 생활이 가능한 공간으로서의 ‘방’²³⁾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인간적 공간, 즉 집으로 호명되고 있으나 집으로는 기능하지 못하는 미숙한 집, ‘간이 숙박소’²⁴⁾로 기능하는 곳이다. 자신이 살았던 방의 위치를 설명하면

성 노동자로서 실제 경험한 체험이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것이 ‘공간’의 문제와 연결하여 이해하고 있다는 점들을 고려한다면 본고의 문제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21) 신경숙, 『외판방』, 문학동네, 1995, 38면.

22) 정찬일, 앞의 책, 432면.

23) 『외판방』에서 이상적 ‘방’의 모습은 큰오빠의 신혼집에 마련된 ‘나의 방’의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내 방 창문에 검은 도화지를 붙였다는 이유로 나는 새언니와 다투게 되고, 오빠가 사다준 삼성출판사의 한국현대문학전집을 읽으며 나는 더 이상 자신의 방에 도화지를 붙이지 않는다. (신경숙, 앞의 책, 401-402면.) 외부와의 온전한 단절을 위해 ‘검은 도화지’를 붙이던 ‘나’가 이를 ‘현대문학전집’으로 대체하는 장면은 진정한 ‘자기만의 방’이란 자신의 내면으로 침잠할 수 있는 온전한 공간일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4) “살아 있다는 것, 우리가 그 골목에서 간이숙박소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살아 있다는 것이야.” (위의 책, 221면.)

서 ‘어느 길로 접어드나 공단과 연결되었다’고 떠올리고 있는 『외판방』 속 ‘나’의 회상은 벌집 역시 공장의 생산량 증가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삶을 허락하는 통제적 공간이었음을 보여준다.

수원행 전철이 통과하는 전철역이 그 동네의 시작이다, 고 전철역 앞에서부터 길은 세 갈래로 나뉜다, 고 길은 세 갈래였어도 어느 길로 접어드나 공단과 연결되었다, 고 단지 그 집으로 통하는 좌측길만 사진관과 보리밭다방 사이로 골목이 또 있었고, 그 골목을 사이에 두고 집들이 들어서 있었다, 고 그러나 집들이 있는 그 골목을 벗어나 시장으로 통하는 육교를 건너고 나면 그 시장 끝도 역시 공단이었다, 고 서른일곱 개의 방이 있던 그 집, 미로 속에 놓인 방들, 계단을 타고 구불구불 들어가 이젠 더 어쩔 수 없을 것 같은 곳에 작은 부엌이 딸린 방이 또 있던 삼층 붉은 벽돌집.²⁵⁾

이렇듯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노동을 강요받던 여성 노동자들은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노동운동에 투신하게 된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능동적으로 노동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여성 노동자가 되어가는 과정이 자신들만의 ‘장소’를 발견하고 만드는 과정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3. 산업선교회 소모임과 ‘온전한 방’의 경험

이처럼 여성들을 위한 ‘사적 장소’가 부재한 상황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일터’였던 공장 역시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장소’가 되기는 어려웠다. 여

25) 위의 책, 47면.

성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던 공장이라고 해도, 여기에서조차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 노동자들보다 훨씬 열악한 처우 속에서 노동해야 했다. 이러한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은 다음의 인용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그곳에서 일하는 아가씨 하나가 책임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구 얻어 맞은 사고가 일어났다. 어떤 사람은 일하는 아가씨를 때리고 목까지 졸라 기절을 시킨 일도 있었다. 우리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도저히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생산부 2과는 테이프 작업을 하는 곳인데 그곳 과장은 자기 부서의 아가씨들을 농락하기도 하였다는 소문이 돌았다. 월급을 남들보다 더 올려준다는 조건으로 공장내 여공들을 데리고 다니며 놀았다는 것이었다.²⁶⁾

이와 같은 이중 삼중의 억압과 폭력 속에서 자신들의 일터인 공장을 자신들의 공간으로 여기거나, 더 나아가 이곳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드는 ‘노동운동’을 할 수 있는 노동자로서 스스로를 정체화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 장남수의 수기에서 ‘나’가 여성 노동자 ‘미혜’와의 다툼은 장면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나하고 관계도 없는 일’, ‘그 사람들 일’이라며 노동조합과 거리를 두는 미혜의 모습은 여성 노동자들이 자신을 노동자로 정체화하는 것에 대해 심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미혜는 담임, 반장 눈치를 보느라 작업중엔 화장실도 잘 못 간다. 그러나 뭐라 할 말이 없었다.

“애 우리 퇴근하고 노동조합에 한번 가보자. 책도 많더라.”

라고 말하자

“싫어. 난 빨리 가서 잠잘래. 피곤해 죽겠어.”

“애는, 싫어가 뭐니 노조엔 우리가 드나들어야 되는 거잖아.”

26) 송효순, 『서울로 가는 길』, 형성사, 1982, 60면.

아는 척을 하자

“나하고 관계도 없는 일 뭐하러 신경쓰니?”

“애 그게 어째서 상관이 없니?”

“무슨 상관이 있어? 나야 일하고 돈만 타면 되는 건데. 노동조합은 그 사람들(상근자) 일이지 우리가 왜 상관해?”

“노조가 어째서 그 사람들 일이니? 애는, 노동조합이란 말 뜻을 생각해 봐.”

“어머 앤 왜 괜히 네가 열올리니?”

미혜가 핵 토라진다.²⁷⁾

이때 여성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사유를 키워나갈 수 있는 독특한 장소가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산업선교회를 기반으로 탄생한 ‘소모임 공간’이다. 우선 여성 노동자 소모임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산업선교회 소모임이 어떤 맥락에서 생겨나게 되었는지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숙경에 따르면, 한국의 산업선교는 1968년 개최된 동아시아교회협의회를 기점으로 기존 산업전도와 구별된다. 이 협의회를 통해 산업선교자들은 ‘산업선교’로 활동명칭을 바꾸고, 노동자의 문제를 교회중심적으로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노동문제에 보다 관심을 갖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하게 된다. 이후 1970년 발생한 전태일 사건 및 1971년의 김진수 살해사건으로 촉발된 산업선교와 기성교회와의 충돌, 그리고 한국노총과의 갈등은 산업선교가 교회와 노총과 결별하고 일반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운동을 시작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²⁸⁾ 그러나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은 매우 억압적인 노동정책을 펼쳤고, 활동 방법이 모두 차단된 산업선교회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동안 산업선교회에

27) 장남수, 앞의 책, 31-32면.

28) 산업선교회의 활동과정에 대한 내용은 장숙경, 『한국 개신교의 산업선교와 정교유착』,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박사논문, 2009의 제2장 3절 중 65-104면까지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서 소외되어 있던 여성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소그룹 활동이었다.²⁹⁾ 인천 산업선교회는 1971년부터 노동조합에 관심을 가진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들에게 노동교육을 시작하고, 이로 인해 1972년 동일방직 노조에 여성 지부장과 여성대의원이 처음으로 선출되면서 이러한 분위기가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다른 공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영등포 산업선교회는 한국모방을 퇴사한 여성노동자들의 퇴직금 받아주기 운동을 계기로 조합원 의식화를 위한 소그룹 활동을 시도하였으며, 1970년대 본격적으로 여성 노동자의 의식화를 위한 소그룹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³⁰⁾

송효순과 석정남, 장남수 등 여성 노동자들의 수기는 이 시기 여성 노동자들이 참여했던 산업선교회 소모임의 풍경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들은 대부분 친구의 소개로 산업선교회 소모임에 가입하게 되는데, 장남수가 묘사하는 산업선교회 소모임의 분위기를 통해 이들이 이 소모임에 좋은 인상을 받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산업선교는 다른 교회와 달리 매일 문이 열려 있다고 한다. 많은 노동자들이 드나들며 몇 명씩 그룹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상식, 지식 등을 배운다고 한다. 그룹이름도 다양하게 꽃이름, 풀이름 등을 따서 지었다. 빙 둘러앉아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노동자들 중 아무나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예배 후엔 차를 마시며 얘기를 나누다가 돌아오는 주일저녁 예배 분위기가 참 좋았다. 커다랗게 쌓아올린 교회, 입구에 들어서면 기다란 현금 그레프가 그려져 있고, 전자올겐 소리가 울려퍼지는 장엄(?)한 교회가 아니라서 좋았다.³¹⁾

29) 장숙경, 『산업선교, 그리고 70년대 노동운동』, 도서출판선인, 2013, 210면. 장숙경은 산업선교가 70년대 여성 노동자 중심으로 활동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가장 분명한 이유는 산업선교회가 처음부터 여성 노동자에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박정희 정권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여성 노동자들에게 눈을 돌리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30) 여성 노동자 산업선교회 활동에 관한 내용은 위의 책, 105-110면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31) 장남수, 앞의 책, 53-54면.

위의 대목을 통해 산업선교회 소모임은 교회, 혹은 예배당이라는 본연의 공간이 가진 기능을 넘어 자유롭고 평등한 분위기에서 느긋하게 회원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이들과 함께 상식과 지식을 나누며 소통할 수 있는 '사적 공간'으로 기능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여성 노동자들은 산업선교회 소모임에서 '기숙사'와 '별집'에서는 온전히 누려보지 못한 '온전한 방'을 발견하고, 이를 향유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또한 여성 노동자들에게 있어 산업선교회의 소모임 공간이 중요했던 것은 이곳이 자신을 포함한 모든 여성 노동자들이 억압이나 차별 없이 '노동자'로서 폭력에 맞설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자신들의 '장소'로서 기능했기 때문이다.

지부장님은 어딜 가나 노동자의 생활상을 크게 얘기하시고 우리들이 감추려 하는 월급이나 일하는 것 등을 되려 나타내셨다. 같이 다닐 때면 노동자라는 것이 그렇게 신날 수가 없었다. 비로소 나는 '공지'라는 것을 알았다. 노동자의 공지, 일하는 가치, 이것이 얼마나 또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우리가 비굴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공연히 배운 사람, 가진 사람 앞에 서면 쫓아들고 움추러드는 것을 이제는 부끄럽게 생각하게 되었고 노동조합의 필요성과 일하는 사람이 자랑스럽고 떳떳함을 느끼며 가슴이 벅찼다.³²⁾

그렇다면 여성 노동자들은 이 '장소'의 경험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는가. '산업공동체 소모임'을 경험한 후 석정남이 시위 현장에서 모임과 연대에 대해 생각하는 장면은 여기에 대한 사유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작은 하나 하나의 별들은 누구를 지배하거나 놀림을 당하지 않으면서 그저 저 혼자 떠 있을 뿐인데, 저토록 아름답고 자연스런 조화를 이룰 수

32) 석정남, 『공장의 불빛』, 일월서각, 1984, 55면.

있다니……. 내 곁에 이리저리 낙엽처럼 흩어져 누워있는 동료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니 서글픈 생각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³³⁾

지배하거나 지배당하지 않으면서도 하나하나가 아름답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세상을 꿈꾸게 된 것은 ‘산업공동체 소모임’이 여성 노동자들에게 가져다준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서로를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하면서 좋은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이들의 ‘수평적’ 모임 방식에서도 엿볼 수 있다.

회관행사를 마치고 우리 ○○그룹은 새 회관에서 처음으로 자치회를 열었다. 자치회는 회사별로 각 그룹이 함께 모여 회사 문제를 토론하고 해결하는 모임이었다. 그래서 우리회사에서 함께 근무하고 그룹을 하다가 척추결핵으로 입원하게 된 김순희를 위한 자치회를 가졌다.³⁴⁾ (강조는 인용자)

새로운 5월이 시작되는 첫째 수요일 모임은 한 달 계획을 세우는 날이었다. 이 모임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좋을까? 그 어떤 안전이라도 좋으니 부담없이 자기의 의견을 발표하라고 사회자가 말했다. 약간 어색한 분위기 때문인지 처음에는 서로들 입을 다물고 있었으나 한 사람 두 사람 자기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다.³⁵⁾ (강조는 인용자)

결국 여성 노동자들은 산업선교회 소모임을 자신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강화하는 장소로 ‘전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⁶⁾ 이처럼 산업선교회 소

33) 위의 책, 47면.

34) 송효순, 앞의 책, 111면.

35) 석정남, 앞의 책, 25면.

36) 김원 역시 산업선교회 소모임의 의의에 대해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도시산업선교회 및 교회 단체의 영향력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김원, 앞의 글, 129면.) 이것을 여성 노동자들이 “서로 같은 부류의 여성이자 노동자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그들과 감독자, 고용주가 다른 집단임을 인식하게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정치적 공간’으로 활용했다는 점에 방점

모임을 통해 자신들을 위한 '장소'를 경험한 여성 노동자들은 타인에 의해 수동적으로 주어진 장소에서 나아가 능동적으로 자신들만의 장소를 만들어 나간다.

4. '불온한 방'의 탄생: 새로운 '장소 만들기'의 의미

산업선교회 소모임 참가의 경험을 토대로 여성 노동자 소모임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동일방직사건과 복직운동을 이끌어낸 석정남의 수기는 여성 노동자들의 새로운 '장소 만들기'의 양상을 특히 잘 보여주고 있다. 산업선교회의 '열매클럽'에 참가했던 경험을 기반으로, 석정남은 자신이 스스로 클럽을 조직하겠다고 마음먹고 동료 여공의 자취방에서 '사철나무 클럽'을 조직한다.

강의 시간에 듣고 배운 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고 받아들이 수 있어야 한다. 그런 효과는 그룹 토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나에겐 설 땅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스스로 설 땅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나도 저들처럼 클럽을 조직하자.³⁷⁾

새로운 소모임을 스스로 조직하는 것을 '스스로 설 땅'을 만든다고 설명하고 있는 석정남의 발언은 이것이 노동자 스스로 자신들이 존재할 수 있는 '장소'를 주체적으로 마련한다는 행위와 맞닿아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또한 소모임에 참여한 여성 노동자들은 토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을 두어야 함을 지적한 바 있다. (위의 글, 132면.)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본고는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 여성 노동자들이 산업선교회 소모임 경험을 통해 자신들의 '장소'를 만들 수 있는 능동성을 가지게 되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37) 석정남, 앞의 책, 73면.

밝히며 그동안의 과오를 반성하고 앞으로 자신들의 운동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정립한다.

단 몇 명이라도 모여서 그간의 생각을 정리하고 의견을 나누어 보았으면 하는 평소의 구상대로 하나의 작은 모임을 마련해 보았다. 내가 토론의 대상으로 선택한 사람은 상집간부가 아닌 사람도 있었고 대의원을 지냈던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공개적인 성격을 띤 것은 아니고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 중 나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으로 대상을 삼았다. (중략) 복잡한 절차나 격의없는 토론, 두서없는 대화였으나 여기에 한번 그 내용을 간추려 옮겨 본다.³⁸⁾

이때 이 토론의 주제를 요약하자면 ‘주체적인 여성 노동자 되기’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를 잘 보여주는 토론문의 대목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선자: 우리가 그때 그때 느끼면서도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넘어갔던 문제들이 오늘의 토론에서 잘 정리되어지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저들이 말하는 외부세력에 관해서 얘기해 보자. 실사 외부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다 하더라도 결국 실천하고 행동으로까지 옮기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 결정하고 행해 왔었잖아. 그것을 나는 결코 외부세력의 개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나 역시도 JOC에 나가서 교육도 받았지만 말이야.³⁹⁾ (강조는 인용자)

정남: ... 요즈음 나는 나 자신에게서 놀라운 변화를 발견하게 돼. 어떻게 나같이 멍하고 답답하던 사람이 이런 것까지 생각이 미치고 극복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야. 그 중 하나를 얘기한다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싸움은 지부장이나 간부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 구성원인 나는 그들이 하는 대로 충실히 따라주기만 하는 것이 조합원으로서 가장 모범적인 태도라고 생각했어.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지부장·

38) 위의 책, 139-140면.

39) 위의 책, 143면.

총무·너·나할것없이 개개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상집간부가 안하고 있을 때 내가 할 수도 있고 선배가 안하면 후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후략)⁴⁰⁾ (강조는 인용자)

이들이 토론을 통해 보여주는 사고방식은 곧 “스스로를 정치적 주체로 정립하는”⁴¹⁾ 행위인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장소를 능동적으로 만들어내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결국 각자 동등한 위치에서 주체적이고 평등한 방식으로 공동체를 꾸려나가는 것은 곧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신들만의 ‘장소예의 투쟁’과 맞닿아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한편 여성 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장소를 만들어나가는 행위는 ‘감옥’이라는 절대적인 통제 공간에서도 이어진다. 장남수의 수기는 노동 운동으로 수감된 여성 노동자들의 ‘장소 만들기’의 양상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원풍모방의 노동자였던 장남수는 1978년 2월 발생한 ‘동일방직 동물 투척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고,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에 참석하여 자신과 같은 여성 노동자들에게 벌어진 부당한 일을 알리고자 결심한다. 이른바 이 ‘부활절 사건’으로 구속된 장남수는 6개월간의 감옥 생활을 자신의 수기에 담아낸다. 이때 장남수가 그려내는 ‘감옥’의 풍경은 공장을 다리며 ‘살림’을 살았던 ‘방’과 크게 다르지 않은 평범한 공간의 모습이다.

식사가 끝난 후 찬찬히 방을 둘러보았다. 한쪽 구석엔 푸른 이불이 차곡차곡 쌓여 있고 그 옆에 선반이 있다. 풍풍·비누·칫솔·치약·화장지 등 필요한 살림(?)도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성경책과 찬송가 등 약간의 책도 꽂혀 있다. 선반 위에는 벽장이 있고 개인 속옷이랑 필수품들이 푸른 보파리에 담겨져 놓여 있고 베개도 쌓여 있다. 방 한쪽 귀퉁이에는

40) 위의 책, 145-146면.

41) 안지영, 앞의 글, 403면.

화장실이 팔려 있는데 생각보다 깨끗했다.⁴²⁾

질 밸런타인에 따르면, 감옥에서 만나는 일상용품은 “수감자를 외부 세계와 잇고 시간과 공간 저편의 사람과 연결시키는 중요한 매개물”이다.⁴³⁾ 이를 고려한다면, 이들이 감옥을 ‘살림방’과 비슷하게 꾸민다는 것은 감옥을 공포와 폭력의 공간이 아닌 일상적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 가능하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감옥 안에서도 감옥 바깥과 다름없는 일상을 영위하고자 노력하는 이들은 더 나아가 ‘예배’의 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방’을 더욱 특별한 자신들의 공간으로 치환한다. 이들이 보여주는 감옥 안에서의 예배 행위가 중요한 것은, 예배 시간이 감옥이라는 통제적 공간에서 자신들이 처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잠시 잊는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수감될 수밖에 없는 부당한 현실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연대할 수 있는 장소로서 감옥을 재의미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예배보자.”

명자의 제의에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내가 기도를 했다.

“주님,

암담하게만 생각되는 현실입니다.

지금의 저희들에게겐 두터운 벽과 차가운 마룻바닥과 쇠사슬이 있을뿐입니다.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소서. 당신 앞에 진정 아무것도 없는 벌거숭이인 저희들에게 뜨거운 가슴과 의지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신념을 주소서. 그래도 옳게 살아보겠다고, 진실하고 인간답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저희를 실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진실은 진실로 나타나고, 옳은 것은 옳은 자리에 서게 하소서.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기계 앞에서 손이 짝려나가면서도 일하는 노동자, 쫓겨나고 매맞아 울고 있는 노동자들,

42) 장남수, 앞의 책, 94면.

43) Gill Valentine, 앞의 책, 202면.

그리고 양심껏 사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가족들을 생각하며, 또 간헐 계신 목사님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동료들을 생각하며, 우리는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했다. 그야말로 ‘뭉인 손들의 기도’였다. 그때처럼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해본 적이 없었다.⁴⁴⁾

결국 다른 사람들의 자리를 탈취하여 자신들의 자리를 만들어내는 대신, 자신들의 장소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여성 노동자들의 소모임이라는 ‘장소 만들기’란 ‘자리없음’의 상태를 벗어나려는 여성들의 ‘존엄성’을 찾는 과정이자, 폭력과 통제를 비껴가는 ‘새로운 장소’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결론

여성 노동자들이 보여준 새로운 ‘장소 만들기’와 이를 통한 여성 노동자들의 연대는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다. 산업선교회 소모임을 계기로 자신들만의 ‘사적 장소’를 만들어낸 여성 노동자들은 이를 기반으로 노동하는 공간이자 억압받던 공간이던 ‘공장’을 자신들의 목소리를 능동적으로 낼 수 있는 공론장으로 만들어 나간다. 경공업 중심의 경제발전에서 중공업 중심으로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을 필요로 하던 노동집약적 공장들이 줄어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노동자들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에 성실히 참여하였으며,⁴⁵⁾ 같은 해 3월 ‘여성노동자

44) 장남수, 앞의 책, 114-115면.

45) 정찬일에 따르면, 1987년 노동쟁의에서 여성 중심 사업장인 섬유와 전기전자 공장의 노

운동의 독자적 영역 구축’을 위해 한국여성노동자회가 결성된 것도 여성들이 본격적으로 공론장에 서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⁴⁶⁾

1987년 이후 등장한 여성 노동자들이 능동적으로 노동운동을 주도하는 내용의 노동소설들은 이 시기의 이러한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특히 여성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이들의 저항에 대해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던 문단이 여성 노동자들을 사건을 주동하는 주체적인 인물로 내세우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은 여성 노동자들의 ‘장소 만들기’가 보여준 저력과 무관하지 않다. 여성 인물들이 잔업 특근 거부를 주도하고, 노조를 결성하고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강행하는 등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노동운동을 주도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다루고 있는 방현석의 「새벽출정」(『창작과 비평』, 1989년 봄호)과 여성 노동자가 대다수인 ‘그랑프리 패션’에서 일어나는 ‘길자언니’라는 여성 노동자의 주도 아래 일어나는 노동투쟁의 상황을 여성 노동자인 ‘순덕’의 시선에서 그리고 있는 정도상의 「새벽 기차」(『실천문학』, 1988.6.)는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텍스트일 것이다.

그러나 이 두 텍스트는 역으로 이제 시작된 여성 노동자의 ‘장소 만들기’의 욕망이 여러 겹의 억압 아래 놓이게 되는 현실을 짙진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방현석의 「새벽출정」에서는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을 여전히 진지한 것으로 바라보지 않으려는 세간의 분위기가 그려진다. 순옥과 농성에 참여한 산업체 야간 학생들을 ‘공순이’라 부르며 조롱하는 경찰⁴⁷⁾과 산업체 야간학교의 선생들의 태도⁴⁸⁾는 여성 노동자들을 주체적인

동맹의는 253건과 271건으로, 기계금속(593건)이나 화학 공장(83건)과 크게 뒤지지 않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정찬일, 앞의 책, 496면.)

46) 한국여성노동자회, 「연혁」, <http://kwwnet.org/>, 2020. 7. 24 접속.

47) 표적을 잃고 허탈하게 앉아 있는 조합원들에게 표적을 자처한 것은 경찰이었다. “야, 공순이들이 왜 여기까지 와서 난리야.” “인천에 성냥공장, 성냥공장 아가씨야.” (방현석, 「새벽 출정」, 『창작과 비평』, 1989.3, 235면.)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회적 분위기를 단면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정도상의 새벽기차에서는 남성의 억압과 편견뿐만 아니라 같은 여성들의 편견에도 시달려야 하는 여성 노동자의 고뇌를 그리고 있다. 사회운동에 가담하여 고초를 치른 대학생 오빠의 모습에 통곡하던 어머니에게 “지년 처지를 모르고 데모를 한다”⁴⁹⁾는 소리를 듣는 순덕이 ‘아양’을 떨며 어머니를 달래는 모습⁵⁰⁾은 여전히 ‘노동자’가 아니라 ‘순진하고 무식한’ 여성으로 치부되는 여성 노동자의 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심지어 여기에 산업구조가 경공업 중심에서 중공업 중심으로 바뀌고, 결혼과 출산 등 여성 노동자를 둘러싼 복합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더해지면 서⁵¹⁾ 여성 노동자들이 만들어 나갔던 여성 노동자들의 ‘장소’는 다시 그 자취를 감춘 것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자취를 감춘 것으로 여겨졌던 여성 노동자들의 ‘장소 만들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200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된 여성청소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조직의 사례는 여성 노동자들의 장소 만들기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이다.⁵²⁾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노동

48) 수업시간에도 세광 조합원들만 지적당했고 수모를 겪었다. “하라는 공부나 잘해. 그렇게 해서 언제 공순이 신세 면할래.” (위의 글, 238면.)

49) “학생도 아닌 년이 데모는 뭐 데모여, 이년아야. 이 복날에 개 패드끼 패도 씨언쨌을 년아! 데모하는 니 오빠 땀시도 징글몹서리가 쳐지는다. 아나 데모, 아나 데모 강아지가 다 웃것다 이년아. 시상에 지년 처지도 모르고 데모를 혀! 네 이년 너 죽고 나 죽자야, 이년 아아…….” (정도상, 『새벽기차』, 『실천문학』 1988.6, 229면.)

50) “에이 어엄마어” 순덕이 앞으로 돌아서 아양을 떨었다. “이것이 그냥” 오랜 농사일로 손가락 마디 마디가 꺾어질 대로 꺾어진 손을 들어 때리는 시늉을 하며 어머니는 웃었다. (위의 글, 231면.)

51) 정찬일, 앞의 책, 497-498면.

52) 안숙영, 『젠더와 공간의 생산-여성청소노동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22(3),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2012.10, 103면. 안숙영은 젠더의 관점에서 공간의 생산을 살피기 위해 여성청소노동자의 사례를 분석한다. 그는 여성청소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식사 공간’이나 ‘휴식 공간’을 위해 투쟁하는 과정은 이들을 시민으로 가시화하며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일터’라는 일상적 공간이 곧 정치적 공간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하기를 강요받았던 여성청소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공적 공간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투명인간’으로 취급받았던 자신들의 정체성을 ‘노동자’로 정립하고, 나아가 자신들의 온전한 사적 공간을 쟁취하기 위함인데,⁵³⁾ 이는 지금까지 살펴본 여성 노동자들의 ‘장소 만들기’를 통한 투쟁과 매우 닮아 있다. 이렇게 본다면 여성 노동자들의 ‘장소 만들기’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렇기에 여전히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고에서 살핀 1970년대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이어졌던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운동, 특히 이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여성들의 ‘장소 만들기’의 역사는 좀 더 섬세하게 독해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여전히 호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자신들의 ‘자리없음’을 깨닫고 자신들만의 공간/장소를 갖기 위해 투쟁하는 힘의 근원이었던 여성 노동자들의 ‘장소 만들기’는 다양한 곳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박탈당한 작금의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2020년 7월 26일에 접수되어 KCI 논문 유사도 검사를 필한 후 2020년 8월 3일부터 8월 17일 사이에 이루어진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20년 8월 27일 편집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게재가 확정되었음.

53) 위의 글, 97-100면.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나보순 외,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도서출판돌베개, 1983.
 석정남, 『공장의 불빛』, 일월서각, 1984.
 송효순, 『서울로 가는 길』, 형성사, 1982.
 신경숙, 『외딴방』, 문학동네, 1995.
 장남수, 『빼앗긴 일터』, 창작과비평사, 1984.
 방현석, 「새벽출정」, 『창작과비평』, 1989. 봄.
 정도상, 「새벽 기차」, 『실천문학』, 1988.6.

2. 국내 논문 및 단행본

- 김광현, 『거주하는 장소』, 안그라픽스, 2018,
 김문경, 「1970년대 한국 여성노동자 수기와 그녀들의 ‘이름 찾기」, 『한국학연구』 49,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8, 307-331면.
 김양선, 「70년대 노동현실을 여성의 목소리로 기억/기록하기-여성문학(사)의 외연 확장과 70년대 여성 노동자 수기」, 『여성문학연구』 37, 여성문학학회, 2016, 7-38면.
 김원, 「1970년대 ‘여공’의 문화: 민주노조 사업장의 기숙사와 소모임 문화를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 4, 한국여성연구소, 2004.10. 101-148면.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2015.
 방혜신, 「70년대 여성노동운동에서 여성 특수과제의 실현조건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논문, 1993.
 안숙영, 「젠더와 공간의 생산-여성청소노동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22(3),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2012.10, 89-112면.
 안지영, 「여공의 대표 (불)가능성과 민주주의의 임계점-1970~1980년대 여성-노동자들의 수기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55, 상허학회, 2019.2, 381-420면.
 오자은, 「‘문학여공’의 글쓰기와 자기 정체화」, 『한국근대문학연구』 19, 한국근대문학학회, 2018, 7-52면.
 장숙경, 「한국 개신교의 산업선교와 정교유착」,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박사논문, 2009.
 ———, 『산업선교, 그리고 70년대 노동운동』, 도서출판선인, 2013.

- 정미숙, 「70년대 여성노동운동의 활성화에 관한 경험 세계적 연구-섬유업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논문, 1993.
- 정종현, 「노동자의 책임기-1970-80년대 노동(자)문화의 대항적 헤게모니 구축의 독서사」, 『대동문화연구』 86,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4, 73-121면.
- 정찬일, 『삼순이-식모, 버스안내양, 여공』, 책과함께, 2019.
- 천정환, 「서발턴은 쓸 수 있는가-1970~80년대 민중의 자기재현과 ‘민중문학’의 재평가를 위한 일고」, 『민족문화사연구』 47, 민족문화사학회, 2011, 224-254면.
- 한영인, 「글 쓰는 노동자들의 시대-1980년대 노동자 “생활글” 다시 읽기」, 『대동문화연구』 86,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4, 9-44면.

3. 국외 논문 및 단행본

- Doreen Massey, 정현주 역, 『공간, 장소, 젠더』,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 Gill Valentine, 박경환 역, 『공간에 비친 사회, 사회를 읽는 공간』, 한울아카데미, 2014.
- Linda Margaret McDowell, 여성과 공간 연구회 역, 『젠더, 정체성, 장소』, 한울아카데미, 2019.

4. 인터넷 자료

- 한국여성노동자회, 「연혁」, <http://kwwnet.org/>, 2020. 7. 24 접속.

국문초록

본고는 1970~8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 및 노동 수기에서 표상화된 여성 노동자들의 ‘소모임’ 만들기를 새로운 ‘장소 만들기’의 문제로 이해하고, 여기에서 탄생하는 새로운 ‘장소’의 의미를 구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때 여성 노동자들의 ‘장소’란 여성 노동자의 삶의 공간인 방, 집, 기숙사 등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결집한 크고 작은 모임들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다. 농촌을 떠나 도시의 공장에서 노동하게 된 여성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사적 공간인 ‘기숙사’와 ‘벌집’은 온전한 사적 공간으로 기능하지 못한다. 이렇듯 여성 노동자를 위한 ‘장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주어진 산업선교회의 소모임은 여성들에게 내밀한 사유가 가능하며, 서로 연대할 수 있는 ‘온전한 방’의 경험으로 다가오게 된다. 이를 계기로 여성 노동자들은 수동적으로 장소가 주어지는 것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자신들의 ‘방’을 만들어 나가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들을 향한 억압과 폭력에 저항한다. 이러한 ‘장소 만들기’의 양상은 1980년대 중반까지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원동력으로서의 의의를 가지며, 다양한 곳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박탈당한 작금의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

■ **핵심어** : 여성 노동자, 장소, 산업선교회, 노동수기, 노동소설, 1970년대, 1980년대

■ Abstract ■

The Rebellious Room of Female Workers

—Labor Movement as ‘Making Places’ of Female Workers
in the 1970s and 1980s

Lim Heehyun(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attempts to understand the organization of the ‘small group’ by female workers represented in novels and labor memoirs from the 1970s to the 1980s and seeks to reveal the meaning of the term ‘place’. The ‘place’ of female workers includes all large and small gatherings where female workers can assemble, such as rooms, houses, and dormitories. The ‘dormitory’ and ‘honeycomb’, which are private spaces provided to female workers in urban factories who left the country to work, do not function as intact private spaces. Industrial Mission Association, which is one of the few ‘places’ allowed to female workers, gives women experience of having a ‘complete room’ that they can consolidate each other and share their thoughts. It induces female workers to actively create their own ‘rooms’, where become the resistance base against oppression and violence upon them. This aspect of ‘place-making’ has significance as a driving force to support female workers to play a leading role in the labor movement until the mid-1980s, and can still be a valid driving force for female workers who have been deprived of their positions in various places.

■ **keywords** : Female worker, place, Industrial Mission Association, labor memoirs, labor novel, 1970s, 1980s